

택시요금 인상 급급…서비스 개선은 뒷전

10일부터 기본요금 3300원…택시운송조합 개선 대책도 안세워
광주 서비스 민원 3년간 3450건…시민들 “친절도 향상 방안부터 ”

최근 박모(45)씨는 밤 11시에 광주시 동구 금남로에서 택시를 탔다가 불쾌한 경험을 했다. 북구 망월동의 한 마을로 가달라고 요청했는데 택시기사가 추가 요금을 요구한 것이다. 박씨가 이를 거부하자 기사는 내리라고 했다.

박씨는 “친구 집에 갈 일이 있어 택시를 탔는데, 택시기사가 도착지가 도심외곽에 있다며 추가요금을 요구했다”면서 “추가요금을 거절했더니, 도로 한가운데서 내리라고 한 뒤 바로 떠났다”고 말했다.

지난달 18일 광주로 출장은 이모(35)씨는 함평으로 문상가기 위해 동림동에서 택시를 탔는데 도착하고 나서야 택시 기사가 미터기를 켜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았다. 택시 기사는 자체 책정한 시외요금 5만 9000원을 요구했고 이씨가 따져 물으니 9000원을 깎아줬다. 이씨는 혐의자 택시 회사에 전화했지만 “원래 그런다”는 대답만 돌아왔다.

최모(51)씨도 수일 전 오전 6시에 휴대 폰 앱을 통해 택시를 불렀다가 황당할 일을 겪었다. 여행용 가방을 넣기 위해 트렁크를 열어 달라고 하자 자신의 짐이 있다며 불가능하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뒷 자리에 가방을 놓고 조수석에 앉겠다고 하자 조수석에도 짐이 있다며 거절당했다. 결국 추위에 20분 이상을 땀 끝에 다른 택시를 탈 수 있었다.

오는 10일부터 광주지역 택시 기본요금이 3300원(기존 2800원)으로 인상되지만 택시 기사들의 서비스 개선 노력이나 의지가 부족해 시민들의 불만이 높다. 광주시와 광주택시사업조합은 불친절 처벌 강화 등을 서비스 향상 대책으로 제시했지만 시민들은 매년 형식적이라며 실효성에 의문

을 던지고 있다.

2일 광주시에 따르면 택시 서비스에 대한 민원은 최근 3년간 3450건으로 2016년 907건, 2017년 1104건, 2018년 1439건 등 매년 상승하고 있다.

유형별로는 2018년 기준 불친절 499건, 승차거부 278건, 부당요금 275건, 합승 26건, 도중하차 65건, 호객행위 18건, 미터기 미사용 28건 등이다.

시는 불친절 등으로 적발될 경우, 택시 업체와 개인택시 사업자에게 각각 과태료와 과징금 20만원 씩을 부과하고 있다.

그동안 택시업체들은 최저임금·물가 상

승에 따른 요금 인상을 꾸준히 요구해왔다. 이에 광주시는 지난달 17일 물가대책 위원회를 열어 5년 만에 택시 요금 인상을 결정하고, 요금 인상분은 운전원들의 임금 인상과 처우개선에 쓰도록 권고했다.

하지만 대다수 시민들은 서비스 개선 방안 없이 택시 요금만 인상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예전에도 요금 인상은 있어 왔지만 서비스는 전혀 나아지지 않았으며, 불친절하기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지적이다.

시는 택시 불만족 신고가 접수되면 과태료·과징금 처분과 함께 기존 카드 결제 수수료 지원을 중단하는 규정을 지난해보다 강화해 친절도를 향상시킨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택시 요금 인상 때마다 내놓은 기존 대책과 비슷해 시민들이 느끼

는 불친절 감도는 심각한 상황이다.

택시운송사업조합측은 택시 요금 인상에만 열을 올렸을 뿐 별도의 서비스 개선 대책은 아직 없는 상태이다.

구선모 광주시 대중교통과 주무관은 “민원이 늘어난 배경은 신고 창구 다양화와 시민들의 신고 의식 증가에 비해 택시 기사들의 의식이 그만큼 따라 오지 못한 결과인 것 같다”며 “올해 7월 열리는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앞두고 택시 기사들에 대한 교육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광주시 택시운송사업조합 관계자는 “요금 인상이나 당연히 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지만 현재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세우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2일 광주시 동구 금남로에서 한 시민이 택시를 타고 있다. 광주지역 택시 기본요금은 오는 10일부터 기존 2800원에서 3300원으로 5년 만에 인상된다.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옛 전남도청 복원 시·도민 제보 받는다

5·18 사진·영상·기록 등 접수

문화체육관광부 전남도청복원 전담팀이 5·18 민주화운동 최후의 항쟁지인 옛 전남도청 복원을 위한 사·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제보 내용은 1980년 전후 옛 전남도청과 경찰청 등 6개 건물의 내·외부에서 찍은 사진과 영상, 내부 구조, 내·외부 공간별 항상 상황, 탄흔 자국 등에 대한 자료나 증언이다. 복원 대상은 전남도청 본관·별관·회의실, 전남경찰청 본관과 민원실, 상무관 등이다.

전담팀은 옛 전남도청 복원을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며 5·18 당시 사진, 영상, 기록 등 다양한 자료 수집을 통한 사실에 근거한 복원을 가장 중요한 관건으로 판단하고 있다.

옛 도청복원을 위해 5·18 관련 기관·단체, 전남도청, 국방부, 언론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 중에 있으나 38년이 지나 자료수집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역민들의 관심과 제보가 절실한 상황이다. 제보는 전화(062-601-4211) 또는 e-메일(re1980@korea.kr)로 하면 된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기간제 근로자 부당해고 7일부터 신속 구제

전남지노위 처리기간 대폭 단축

광주·전남지역 기간제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 처리기간이 크게 단축된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기간제 근로자 신속구제를 위해 마련한 ‘조사·심판회의 운영 지침’을 오는 7일부터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지침에 따라 부당해고를 당한 기간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경우 최대 30일 내에 판정을 받을 수 있다.

지노위는 고용주에게 부당해고된 근로

자의 해고기간 임금액과 손해배상액까지 지급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손해배상액에는 ▲권리구제에 소요되는 최소 비용 ▲3개월 내에서 잔여 계약기간에 대한 임금 ▲취업을 위해 주소 이전 또는 직무수행 요건 충족을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 등이 포함된다.

노동위원회 심판회의는 ‘금전보상 판정 기준 가이드라인’에 따라 ▲계약기간 내 이의 보호 필요성 ▲근로자 귀책사유 ▲사용자 경영상황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보상 수준을 정한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무안서 연탄불 갈던 할머니 불 붙어 숨져

거동이 불편한 70대 노인이 연탄불을 갈다 몸에 불이 붙어 사망했다.

지난 1일 오후 6시20분께 무안군 삼향읍의 한 주택에서 이모(여·77)씨가 쓰러져 숨져 있는 것을 아들이 발견, 119에 신고했다. 이씨는 발견 당시 불이 붙은 연탄불이 주변에 있었으며, 입고 있던 옷에도 불이 붙어 타고 있었다. 119구조대가 도착했을 땐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20여년 전 뇌

출혈을 일으켜 한쪽 몸을 잘 움직이지 못했으며, 옆집에 아들 내외가 거주하고 있었다.

아들은 “어머니집에서 연기가 나 119에 신고하고 달려가보니 어머니가 쓰러져 있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몸이 불편한 이씨가 연탄불을 갈다 몸에 불이 붙어 화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무안=임동현 기자 idh@kwangju.co.kr

전남대 수의대 실험동물사서 불…15분만에 진화

지난 1일 오후 3시 5분께 광주시 북구 용봉동 전남대학교 수의대 실험동물사에서 불이 나 580만원(소방서 추산) 상당의 재산피해를 내고, 출동한 119에 의해 15분만에 진화됐다.

이 불은 지나가던 학생이 옥상에서 연기가 나는걸 보고 신고해 초기에 큰 피해 없이 진화될 수 있었다.

북부소방서는 수의대 ‘실험동물사’ 건물 옥상 공조실 배전반에서 전기 누전으로 인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인을 조사중이다.

한편 이 건물은 반려견 사육 및 실험을 하는 건물이며, 이날은 휴일로 인해 근무자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술값 많이 나왔다면 무전취식…전과 52범 40대 영장

광주북부경찰은 2일 술집에서 상습적으로 술을 마시고 돈을 내지 않은 유모(42)씨에 대해 상습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 1일 새벽 4시20분께 광주시 북구 용봉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맥주 30병을 시켜 먹은 후 36만원 상당의 술값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는 또 지난달 27일 새벽 3시35분께 광주시 북구 일곡동의 한 술집에서도

술값 45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유씨는 동종 전과 52범으로 “술값이 비싸게 나왔다”라는 핑계로 계산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씨는 현금을 지니고 있어도 돈을 내지 않고 버티다 경찰이 출동하고 나서야 합의하는 경우도 있었다.

유씨는 지난 2000년 초부터 상습 무전취식을 일삼아 왔으며 신고된 누적 피해 금액만 모두 1600여 만원에 달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식당 주인이 자리 비운 틈타

현금 훔친 군인 헌병대 인계

광주 북부경찰은 2일 휴가 중 식당에서 현금을 훔친 혐의(절도)로 A(20) 상병을 헌병대에 인계했다.

A상병은 지난 1일 오전 7시5분께 광주 북구 한 감자탕집 계산대에서 52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상병은 휴가를 나온 동료들과 술을 마시다가 주인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만취한 A상병은 경찰에 “(범행 사실 이)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편의점서 담배 훔쳐 다른 마트서 환불하려다 ‘딱 걸렸네’



○…편의점에서 담배 두 보루를 훔친 50대가 마트에서 훔친 담배를 환불하려다가 경찰에 걸림.

○…2일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최모(54)씨는 지난 11월11일 오후 6시35분께 광주시 북구의 한 편의점에서 신용카드로 담배 수신탐루를 사겠다고 말해, 종업원이 담배를 서너 보루씩 꺼내드려 주

의를 소홀히 한 틈을 타 담배 두 보루(9만원 상당)를 몰래 가져갔다는 것.

○…최씨는 같은 달 24일께 동구의 한 마트에서 훔친 담배를 환불하려 했다가 영수증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 당하자 마트 앞 가판대에 있던 굴 1봉지도 들고 갔는데, 추적이 나선 경찰이 마트 CC-TV 분석을 통해 최씨를 검거.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지오옥션 부동산 중개법인(주)

“20년 경력의 조여사 010-6211-4585”

경,공매 컨설팅

수익형 추천 물건

- ★ [건물]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동(일반상업지역)
토지:500㎡(151평) 건물:2500㎡(756평)
지상6층 매매가:45억 중심상권, 아파트밀집지역
(보증금 10억, 월수입 1천)
- ★ [건물] 광주 동구 금남로5가(중심상업지역)
토지:912.50㎡(276평) 건물:1,477.64㎡(446.9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48억 대로변, 전시효과최상
- ★ [건물] 광주 광산구 송정동 (일반상업지역)
토지:1,349㎡(408평) 건물:1,350.03㎡(408.3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61억 8차선대로변
- ★ [건물] 광주 북구 일곡동
토지:7,662.4㎡(2,317.8평) 건물:6,864.61㎡(2076.5평)
지상3층 매매가:105억 아파트밀집지역, 복합사우나건물
(보증금 4억3천, 월수입 2천7백)
- ★ [건물] 광주 서구 농성동 (준주거지역)
토지:3,104.6㎡(939.1평) 건물:11,543.18㎡(3491.8평)
지상9층 매매가:100억 대로변, 전시효과최상
대로변, 지하철역세권, 전시효과 최상, 수익률최상

병 원

- ★ [의료시설] 광주 광산구 신가동
토지:900㎡(272평) 건물:1,900㎡(547평)
지상6층 매매가:36억
- ★ [의료시설] 광주 동구 학동
토지:770㎡(233평) 건물:1,458㎡(441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30억
아파트 밀집지역, 대로변, 조대병원인근
- ★ [의료시설] 광주 동구 대인동
토지:514.40㎡(155.6평) 건물:2,143.08㎡(648.2평)
지하1층 지상5층 매매가:32억
약국, 병원, 업무시설 적합
- ★ [의료시설]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토지:580.40㎡(175.57평) 건물:2,889.86㎡(874.18평)
지하2층 지상6층 매매가:37억
상권밀집지역에 위치, 주변 아파트밀집지역

토 지

- ★ [토지] 전남 곡성군 오산면 봉동리
토지:52,504㎡(15882평) 매매가:8억
임야, 계획관리지역
- ★ [토지] 광주광역시 북구 삼각동
토지:5,324㎡(1611평) 매매가:59억6천만
투자가치 최상, 도로변 광고효과 좋음
- ★ [토지] 전라남도 여수시 주삼동
토지:9,157㎡(2770평) 매매가:83억1천만
도로 인프라 최고, 공장이나 물류창고 적합

광주·전남 병원건물(요양, 한방)사우나건물 전문상담 매매·임대 다량보유

대표공인중개사 전민규 062-714-2251